주린지 절

815 년에 승려이자 서예가, 시인이었던 홍법대사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, 해상에서 항해의 안전을 기원한 지장보살의 영감을 얻었습니다. 대사는 귀국 후 당시의 칙령에 따라 국가 진호와 해상 항행 안전을 기원하는 곳으로 주린지 절과 그 외에 7 개의 절을 건립했습니다.

주린지 절의 정문인 인왕문(수호왕의 문)은 에도 시대(1603~1867)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. 산문 양쪽의 2 개의 인왕상은 일본의 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, 영적 또는 물질적 위협으로부터 절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본당은 다카사고 지역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입니다. 불화는 2 점 소장하고 있는데, 한 점은 견본에 그려진 '견본착색 어불존상'이라고 불리는 중요문화재입니다. 다른 한 점은 효고현 지정문화재 '아미타내영도'로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빛과 생명의 천불인 아미타여래를 그린 것입니다.